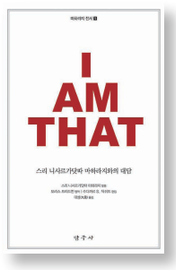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⑮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의 '아이 앰 댓'



▶ 한줄 요약
스스로를 한정짓지 말자

그대는 색깔이 아니라 빛이다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는…

1897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평생 뭄바이 뒷골목에서 잎담배를 말아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스승을 만났고, 스승의 인품과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명상을 시작했다. 4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후 담배 가게 2층의 다락방에서 그를 찾아오는 구도자들에게 40년 넘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스크린 위의 영상들에 의해 스크린이 손상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 모두의 본질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의 대담집 〈아이 앰 댓〉이 발간된 이후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구도자들이 그를 찾아왔다.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방문객들을 가르치기 위해 애썼다. 그의 가르침을 소개한 다른 책으로는 〈담배 가게 성자〉가 있다.



빛이 만드는 색깔의 세계
빛속에는 여러 영역 존재
스스로 한계 인식 말아야

'태어나지 않는 자아'에 대하여

세상살이의 모든 괴로움은 꿈이요 환(幻)이요 물거품이요 아지랑이 같은 것을 실재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데에 있고, 세상사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지어지는 것일 뿐 '붙잡을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번뇌의 불'을 끄는 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살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은 무엇일까? 온갖 조건 지어진 것들 속을 헤매게 하는 주체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절대의 무엇이 없다면, 온갖 조건 지어진 것들 속에서 헤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우리의 불성에 대하여, 우리의 '태어나지 않는 자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행자들아! 여기에 태어나지 않는, 생겨나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리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만일 이 태어나지 않는, 생겨나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리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조건 지어진 것들로부터의 도피는 불가능할 것이다." -우다나 (Udāna) 8품 3.

태어나지도 않고 어떠한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그것'을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안에 모든 존재들이 살고 있고, 그 또한 모든 존재들 안에 살고 있는 자, 모든 것에 은총을 주는 자, 우주의 지고한 영(靈)인 무한한 존재-내가 그것이다(I Am That)." -암리뜨빈두 우파니샤드

만물의 근원이라 할 '그것'은 만물과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두루하고, 우리 주위에 편만한 허공과 같이, 안팎으로 일체를 채우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이별할래야 이별할 수 없는 불가분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데도, '그것'과 따로 떨어져 '그것'이 없는 것인 양 실체 없는 거짓 그물망에 갇혀 살아가거나,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한, 삶은 문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깨달은 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리켜 보일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40세에 갑자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서서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린 마하라지 또한, '지금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아'를 깨닫는 '자아탐구의 길'을 줄기차게 가리켜 보인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만이 죽지 않습니다. 결코 잠을 자지 않고 결코 깨어나지도 않는 그것, 그리고 그것의 희미한 반사가 우리의 '나'라는 느낌인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세계의 비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태어나지 않는 '그것'에서 왔지만 '태어난 것들'은 무엇보다도 이름과 형상에 매달린다. 이름과 형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없으면 자기 존재가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자승자박이다.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집착하는 것들이 허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름과 형상은 전혀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텅 빈 껍질이며, 실재하는 것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순수한 생명 에너지이자 의식의 빛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대는 평안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실재의 깊은 침묵 속에 잠긴 채."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실재로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통탄할 만한 죄이고 모든 재앙의 원인이다. 이름과 형상을 지닌 개체는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싸여서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욕망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지구는 만원이다.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갈등과 투쟁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일이기에 지구촌 전체가 사실은 감옥 자체이다.

이 소동, 이 괴로움,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갈등과 투쟁 속에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세계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세계의 비극은 외부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외부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사로잡힌 자'는 결코 욕망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더 오래 오래 갖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할 것이다. 아무리 효과 좋은 의약품이 등장하여 생명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늘여도 개체는 결국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금방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은 '내일'은 계속해서 내일을 노래 부르며 오늘을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갈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능자가 세상에 와도 주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세계의 비극은 본질적으로 스크린 위의 모습들에 실재성을 부여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구해 줄 수가 없다.

"그대는 자신이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태어났고,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있고, 한 몸뚱이와 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것이 그대의 죄이며 그대의 재앙이지요!"

다시 쓴 '존재의 주소'

니사르가닷따는 '태어난 개체'의 허구성을 인식하라고 말하고, '태어나 본 적이 없는' 실재를 줄기차게 가리켜 보인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태양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태양을 비난할 수는 없다. '빛은 꽃의 색깔을 피워내지만 그것을 제어하지도 않고 그것에 직접 책임이 있지도 않다.' 빛은 색채 안에 있지만, 빛이 색체인 것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색깔들이 있고, 저마다 자기에게 비추어진 색깔을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색깔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빛만이 존재하며, 그 빛이 전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빛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은 빛 안에 있고, 빛은 그림 안에 있습니다."

물이 용기에 따라 모양 지워지듯이, 모든 것은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물이 그릇들과 무관하게 물로 남아 있고, 빛이 색깔들과 무관하게 빛으로 남아 있듯이, 실재도 그것이 반사되는 조건들과 무관하게 실재로 남아 있다. 왜 빛의 반사물에만 집중한단 말인가? 왜 실재 자체에는 의식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단 말인가?

"빛이 색깔이 아니듯이, 세계는 그대에 의해 야기되지만 그대는 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색깔이 된 빛이 자기 자신을 색깔로만 한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왜소한 이미지 안에 구겨넣어 버리는 일인가?

자신이 색깔이 아니라 빛임을 알고 '존재의 주소'를 다시 쓴 깨달은 자는, 그동안에는 꿈도 꾸어 보지 못한 존재의 높이와 깊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색깔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죄수인 동안은 어느 누구도 세계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스스로 묶여 있는 죄수이면서 누구를 풀어줄 수 있겠는가? 그는 결국 상대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그대의 세계라는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그대가 창조한 고통스러운 모순들의 세계는 지속이지도 않고 영구적이지도 않으며 하나의 착각 위에 기초해 있다고 그대에게 말해 줍니다. 그는 그대에게, 그 세계에 들어갈 때와 같은 방법으로 거기서 나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대는 본래의 그대를 망각하여 거기에 들어갔고, 있는 그대로의 그대 자신을 알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탄생과 죽음을 넘어서 있는 '그것'

어느 날 방문객 중 하나가 그에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제 스승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해 드리지요. 당신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나서 그분은 식사를 그만두셨지만, 일상생활의 일과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열하루째 되는 날, 기도 시간에 당신은 힘차게 노래하고 박수를 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두 동작 사이에, 마치 촛불이 훅 꺼지듯이 바로 그렇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고 있으면서 죽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한 죽음을 죽을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태어나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아는 순간 두려워할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고, '세상 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말했던 그는, 평생 잎담배를 팔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의 카르마가 작용한 탓인지, 말년에는 후두암에 걸려 고생했다.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서도 의식은 명료했으며, 거의 마지막 날까지 하루 중 몇십 분이라도 방문객들을 맞아 가르침을 베풀며, "탄생과 죽음에 굴하는 것은 오로지 개체적 허상일 뿐 참나는 탄생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보여주었다. 〈작가〉

